

시·인문학, 예술의 콜라보... 용아 박용철 생가에서 즐기다

광산문화원, 오늘 '고택중갓집 활용 용아 5케스트라 인문학 페스트' 윤길수 장서가 강연, 난타·시니어합창단 등 공연...부채만들기 체험도

"나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두야 간다// 아늑한 이 향균들 손쉽게 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골짜기마다 밤에 익은 뭇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아 사랑하는 사람들"

나 두 야 가련다. 용아(龍牙) 박용철은 모더니즘과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시인이다. 광주 광산 출신으로 배재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도쿄 아오야마 학원과 연희전문에서 공부했다. 광산구 소촌동에는 용아의 생가가 있어, 그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즐겨 찾는다.

"떠나는 배"는 식민지 암울했던 시기의 심상을 시로 표현한 대표작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애송하고 있다. 시 기저에 흐르는 항일정신과 민족정신 외에도 우리말의 아름다운 서정으로 풀이낸 점은 여타의 작품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밖에 '이 대로 가리마는', '고향',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싸늘한 이마', '비 내리는 날', '시집가는 시약시의 딸'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용아는 김영랑, 정지승 등과 함께 시문학파 시인으로 활동했으며 외국 시와 희곡을 번역하는 등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안타깝게 만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용아 박용철 생가에서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29일 '고택중갓집 활용사업 용아 5케스트라 인문학 페스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산문화원이 주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고택중갓집 활용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유년시절 용아가 거주했던 공간을 함께 거닐며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윤길수 장서가 '운명, 책을 탐하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와 더불어 용아의 유품도 감상하고 시문학과 시인들의 시를 함께 읊는 시간도 펼쳐진다.

강연 후에는 서로 토크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용아 박용철의 시와 문학세계를 모티브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과 함께 용아의 작품을 예술로 콜라보한 공연도 펼쳐진다. 광산KC난타가 용아 시를 차용해 작곡한 '나도야 간다' (김수철)를 선보이고 광산오카소리양상부는 용아의 시 '우리의 첫 어머니' (임소엽 작곡)를 선사한다.

광산문화원 시니어 합창단은 용아의 시 '어느날'



29일 광산구 소촌동 용아 박용철 생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2022년 광산문화원이 주최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장면. <광산문화원 제공>

(김선아 작곡) 등을 펼치는데, 지난해 6월 창단된 광산문화원 시니어 합창단은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나만의 부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며, 병뚜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링 키링이 선착순

배부릴 예정이다.

오동근 광산문화원장은 "용아 박용철은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광주가 낳은 대표 시인"이라며 "이번 인문학 페스트를 통해 박용철의 시세계를 들여다보고 그의 문학적, 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9일에는 용아생가에서 '고택중갓집 5케스트라 인문학 페스트' 일환으로 '용아문학 자연에 높다'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심상에 드리워진 각양각색 '봄'을 그리다

한희원·김해성·임근재 등 12명

'봄의 심상과 표현' 전

7월 20일까지 ACC디자인호텔

심상(心象)은 의식 속에 떠오르는 장면, 또는 특정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을 뜻한다. 문예적인 용어인 심상은 대체로 예술 분야에서 쓰인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상상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심상은 또 다른 캔버스다. 상상은 무한한 표현의 장이자 구현의 공간이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아도 실제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르다. 심상과 표현은 이성과 감성의 거리만큼이나 멀기 마련인데 보는 것을 구현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기 때문이다.

봄의 끝물과 초여름 길목에서 '봄의 심상과 표현'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 별관에서 오는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역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김해성, 김효삼, 문명호, 문정호, 박구환, 이승기, 이인성, 임근재, 조근호, 조현수, 최요안, 한희원 등이 그들이다.

주제에 맞게 작가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봄을 그렸다. 더러는 화려하고 수줍게, 더러는 묵직하면서도 서정적이며, 더러는 추상적이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은 각양각색의 봄을 초점화한다.



김해성 작 '양귀비 언덕'

임근재 작가의 '나의 노래'는 화사하면서도 고혹적인 자태를 발하는 나팔꽃의 이미지를 담았다. 활짝 피어난 꽃을 노래로 치환한 것은 자연과 벗하며 사는 일상을 음유시인의 감성으로 바라봤다는 방증일 테다.

김해성 작가의 '양귀비 언덕'은 푸른 수목과 붉은 꽃을 대비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생동하는 푸르름과 요염한 붉음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룬다. 평소 경쾌하고 투명한, 동화와 같은 작가의 화풍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다.

한희원 작가의 '푸른 노을'은 노을에 대한 관념을 전복시킨다. 노을도 푸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작가가 심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연을 심미안으로 감각화했음을 보여준다. 푸른 노을 저편, 작가가 바라보는 것은 심연의 노을이자 탐미적인 노을일 것이다.



임근재 작 '나의 노래'

이밖에 이인성 작가의 'Perfume', 조현수 작가의 '동백', 박구환 작가의 'Recollection', 최요안 작가의 '봄의 전령', 조근호 작가의 '몽치산수', 문정호 작가의 '노란장미' 등이 발하는 봄의 향기와 이미지도 느낄 수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화숨 피는 날'



'땅에 쓰는 시'

정다운·신경수 감독, 광주서 영화이야기

광주극장서 30일 '땅에 쓰는 시', 6월 2일 '목화숨 피는 날' GV

'땅에 쓰는 시' 정다운 감독, '목화숨 피는 날' 신경수 감독이 GV(관객과의 만남)행사로 광주를 찾아온다.

5-6월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두 편의 GV가 이목을 끈다. 오는 30일 오후 5시 펼쳐지는 '땅에 쓰는 시'와 6월 2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목화숨 피는 날' GV가 그것.

지난달 17일 개봉해 2만 관객을 돌파한 '땅에 쓰는 시'는 조경자 정영선의 '땅'을 향한 애착과 철학이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다. 정영선은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선유도 공원, 서울 아산병원 등을 조경해온 1세대 조경가다. 한국적 경관을 세계적 흐름에 따라 그리면서 사람과 공간, 자연을 연결하는 그의 '녹색 철학'이 스크린을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주최하며 진행은 (주)집합도시 이영미 대표가 맡는다.

아울러 세월호 10주기를 기리는 '목화숨 피는 날' GV도 이목을 끈다. 영화는 10년 전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 세월을 되찾는 가족의

기승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광주여성영화회 김재희 집행위원장이 진행하며 신경수 감독, 박원상·우미화·정규수·노해주 배우가 참석할 예정이다.

극영화 중 유일하게 목포신항에 위치한 실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정, 안산·목포·진도 등 참사와 연관 있는 세 곳 로케이션에서 서사를 풀어냈다는 점은 영화에 리얼함을 더한다.

이 밖에도 광주극장은 세계적 미술관을 담은 4K 화질의 다큐멘터리 '라파엘로, 예술의 군주' (6월 1일), 아우슈비츠 소장의 학살기를 조망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 (6월 5일)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자연, 사회적 참사를 다룬 영화 GV와 예술, 역사적 비극을 극화한 작품들을 상영 예정"이라며 "강렬한 감각을 선사하는 영화와 다큐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희망 콘서트'

양상블 정다운, 6월 12일 광양시 종합장애인 복지관

'양상블 정다운' (음악감독 김혜란)은 "다양한 관객에게 친근하고 정다운 멜로디를 통해 다가가고 싶다"는 가치를 내걸고 지역에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성악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단체다. 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첨단 의지 제작소가 '희망 콘서트'를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광양시 종합장애인 복지관에서 선보인다. 양상블 정다운이 출연해 서정적인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아홉 곡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은 이문세 곡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이어 '꽃밭에서'를 비롯해 'The Entertainer', 'Can Can' 등이 울려 퍼진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

요'라는 가사로 흥겨움을 자아내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설운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등 트로트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 밖에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문어'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양상블 정다운은 한양대 음악대학원 및 목포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혜란(클라리넷) 음악감독을 필두로, 조선대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진선 및 독일 Bachelor과정을 수료한 최지은이 플루트 연주자로 소속돼 있다. 전남대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박주연은 보컬, 중앙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하성진은 건반을 맡는다.

김혜란 음악감독은 '복지관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순간, 함께하는 동안 희망, 함께할수록 행복'에



'양상블 정다운'

유념하며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길 바라는 작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초연결사회, 미래를 잇는 MZ인문학' 강연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1월까지

'MZ세대'와 'MZ 인문학'이 있다. MZ세대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라 하는데 기술, 문화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탓에 디지털에 능한 세대다.

'MZ인문학'은 '동력' (Movement)와 새로운 '시대정신' (Zeitgeist)을 이끌어낼 인문학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한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 연결의 바탕에서 공유되고 확산되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연결은 사람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도 포함된다.

'초연결사회, 미래를 잇는 MZ인문학' 강연이 열린다.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공공소통실천센터와

BK21지역인문학기반 미래인력양성교육단이 마련한 이번 강연은 5월부터 11월까지 인문대학 김남주홀에서 진행된다.

백승주 한국어문학연구소장은 "챗GPT와 AI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초연결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이번 인문학 강연을 지렛대 삼아 시대정신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먼저 29일은 김지원 교수가 '책을 읽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연다.

이어 7월 3일 박준 시인, 7월 24일 김진해 교수, 8월 21일 박해물 작가, 9월 25일 강남욱 교수, 10월 30일 김나임 작가, 11월 13일 김성우 리터러시 연구자, 11월 27일 정보라 작가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